

---

저자 (Authors)	류종현
출처 (Source)	<a href="#">한국관광정책 (45)</a> , 2011.9, 17-30(14 pages) <a href="#">KOREA TOURISM POLICY (45)</a> , 2011.9, 17-30(1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문화관광연구원</a>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2144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21445</a>
APA Style	류종현 (201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지역발전 과제. 한국관광정책(45), 17-30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4/29 15:3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지역발전 과제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1. 들어가며

강원도 평창 일원이 지난 7월 6일 3차례 도전 끝에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된 제 123차 IOC총회에서 제23회 동계올림픽의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일본 2회('72 삿포르, '98 나가노) 개최에 이어 아시아 대륙 본토에서 최초로 동계올림픽을 열게 되었다. 평창의 비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올림픽 무브먼트와 동계스포츠 역사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성장과 잠재력의 유산을 추구하여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여는 것이다. 동계 스포츠에 대한 아시아의 성장잠재력은 무한하다.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인구 및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아시아에는 다른 지역들보다 젊은 층의 인구가 월등히 더 많다. 평창은 이렇게 광대한 새로운 시장 및 소중한 기회를 통해, 동계올림픽과 수만 명의 젊은 청소년들을 연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물류비용 단축 대폭 감소를 통한 강원도의 경쟁력 강화, 1시간대 수도권 접근, 수도권생활 기대감, 공간적 장벽을 극복하여 새로운 활력과 강원도의 내륙권과 동해안권 간 교통 물류망이 획기적으로 혁신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 2배, 3만 불 시대에 필요한 무형의 브랜드 인프라 구축과 강원경제의 돌파구를 통한 신동북아시아 경제권 주도 기반 구축을 통해 made in 평창, 강원도상품 호감도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문화 인프라의 세계화 및 아시아 관광허브로 한 단계 도약하여 레저스포츠의 명

소, 세계 관광객 방문 대폭 증가, 국가이미지와 강원도 이미지 브랜드가치를 급상승 하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도민통합을 통한 도민의 자긍심 효과가 극대화 되고 도민선진의 식 고양 및 선진사회 기반 조성과 더 나아가서는 평화의올림픽과 한반도평화정착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강원도의 발전을 50년~100년 앞당길 수 있고 세계적인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소득 2배, 3만 불 시대를 열어 강원도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수지상의 흑자 달성은 물론 강원경제에 영구적인 흑자를 창출하는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장경로(growth path)의 상승도약을 가져옴으로써, 올림픽 개최 후 우려되는 밸리효과(valley effect)를 방지하고 성장률 수준이 영구적으로 한 단계 상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모든 기반시설 투자가 올림픽 개최 이후 강원도의 산업기반과 경제구조 고도화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기존의 산업육성 계획과 병행하여 가까운 미래에 예견되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제1회 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4년 주기로 통상 2월에 개최(17일간)되는 동계올림픽은 지금까지 총 20회의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제21회 대회는 2010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22회 대회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4년 22회 대회까지 유럽 14회, 북미 6회, 아시아 2회(일본) 개최되었다. 동계올림픽의 대회 규모는 80여 개 IOC회원국 선수·임원 등 26,000여 명이 참가하였고 경기종목은 스키·빙상 등 7경기 15종목 86세부 종목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는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 까지 17일간 개최되고 이후 장애인동계올림픽이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열린다. 동계올림픽의 컨셉은 All venues within 30minutes로서 올림픽스타디움과 알펜시아선수촌을 중심으로 설상과 빙상의 2개 클러스터와 2개의 독립 베뉴를 30분 이내에 배치할 예정이며 모든 베뉴들은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3중 입체교통망으로 연결될 것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7경기 15종목, 86세부종목에 약 2만6천 명의 선수단, 임원진 그리고

보도진 등의 인원이 예상되며, 총 6조 5,3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림픽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 미디어촌, 숙박시설 그리고 접근교통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요 시설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알펜시아클러스터(동계 올림픽 활동의 중심)는 평창 황계일원 서쪽 산악지역에 위치하며, 대부분의 설상경기장이 입지한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핑, 노르딕복합,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그리고 올림픽스타디움, IOC본부호텔, 선수촌, 미디어촌(5,250실, 1차완공), IBC/MPC(미디어/취재센터) 등 동계올림픽 경기시설 및 지원시설이 입지된다.

〈표 1〉 알펜시아 클러스터 개요

구분	위 치	대회 시	대회 후	비 고
알펜시아 클러스터 (올림픽시설물)	알펜시아 프리싱트	올림픽 스타디움	스키점프 및 축구장 활용	-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경기장	동계 : 기존 기능 활용 하계 : 산악트레킹, 골프코스	
	알펜시아 근처	슬라이딩(봅슬레이, 루지)경기장	동계 : 기존 기능 활용 하계 : 체험·건강코스	
	황계 일원	IOC 본부호텔	상업숙박시설	
		선수촌	상업숙박시설	
		미디어촌	상업숙박시설	
		IBC/MPC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MMC	임시시설	

다음은 동해안 강릉 경포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Coastal 클러스터이다. 여기에는 모든 빙상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촌이 설치되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모든 빙상활동의 중심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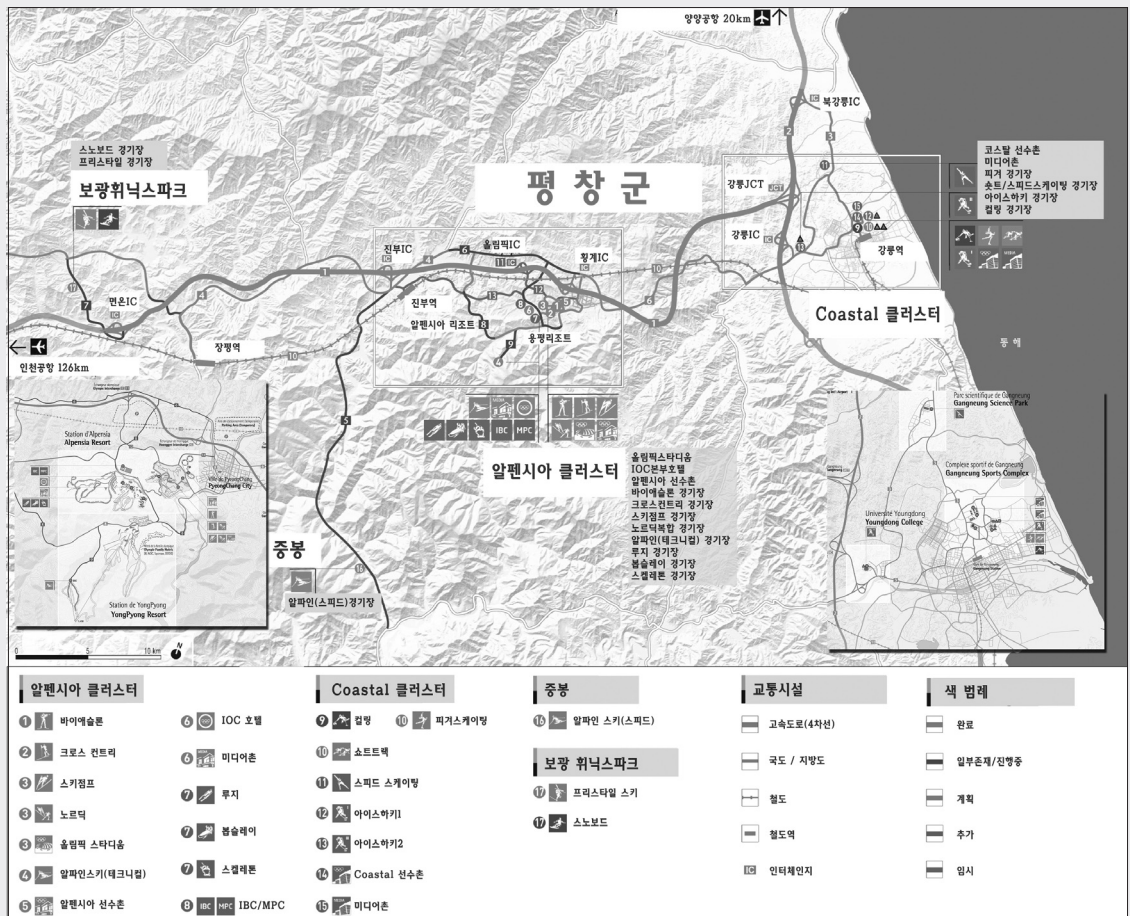
〈표 2〉 Coastal 클러스터 개요

구분	위 치	대회 시	대회 후	비 고
Coastal 클러스터	강릉빙상장	컬링경기장	기존기능 사용	
	Coastal 클러스터 체육단지	피겨/쇼트트랙	빙상장, 문화체육시설	
		아이스하키Ⅰ 경기장	원주 이전 후 아이스하키 전용경기장	
	강릉 영동대학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대학 체육시설	
	강릉과학산업단지	스피트스케이팅 경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전시장	
	강릉일원	강릉선수촌	민간주거시설	
		강릉미디어촌	민간주거시설	

그리고 2개의 독립경기장이 있다. 알파인(스피드)경기장은 올림픽스타디움으로부터 30분(45km) 거리인 중봉에 위치하게 되며, 프리스타일과 스노보드 경기는 역시 올림픽 스타디움으로부터 30분(44km)거리인 보광휘닉스파크(기존시설)에서 개최된다.

〈표 3〉 2개의 독립경기장 개요

구분	위 치	대회 시	대회 후	비 고
Standalone Venues	정선 중봉	알파인 스키	기존 기능 활용	
	보광휘닉스파크	프리스타일스키 및 스노보드	기존 기능 활용	



〈그림 1〉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위치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장, 비경기장 시설확충을 추진(총 6조 5,390억 원: 국비 49,004억 원, 지방비 3,831억 원, 민자 12,555억 원)하고 원주-강릉간 철도, 올림픽 IC신설, 국도 59호, 순환도로 등 15개 사업 등 접근 교통망(4조 7,431억 원, 국비 4조 6,302억 원, 지방비 1,129억 원)을 확충한다.

신설 6개 경기장은 올림픽 대회 후에도 동계스포츠시설로 계속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으로 남을 것이며, 비 경기시설 중 알펜시아클러스터에 건립된 IOC호텔, 선수촌, 미디어촌은 상업숙박시설, IBC/MP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미디어촌은 시

민을 위한 주거시설로 활용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강원도, 시군, 리조트 업체는 올림픽 유산 관리기금을 조성한다.

평창은 역대 동계 올림픽 사상 가장 컴팩트한 컨셉을 바탕으로 모든 경기장을 올림픽스타디움에서 30분 거리 이내에 배치함으로써, 선수, 관중, 미디어를 비롯한 모든 대회 참가자들에게 최적의 대회개최 환경을 제공하며, 평창을 동계스포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약 14억 달러가 투자된 알펜시아 리조트를 포함한 각 경기장을 연결하는 교통망도 정부의 장기계획에 따라 착실히 구축하고 있다.

주요 교통망으로 활용될 원주~강릉 복선철도와 제2영동고속도로도 2010년에 착공되어 1시간대 수도권 접근 등 공간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환경 친화적 수송서비스는 정시성, 안전성,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 되었으며, 대회기간에는 올림픽전용차로제를 시행하는 등 대회 참가자를 위한 완벽한 통합수송 시스템을 제공한다. 저탄소 녹색도로는 임시주차장에서 개·폐회 식당까지 연결통로로 설치되며, 이러한 녹색시스템은 대회유산으로 남아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동계올림픽 개최와 환동해 주변 국가들의 동해진출 노력, 북극항로 개방 및 북극해 자원확보 경쟁 등 환동해 주변지역의 물류여건 변화는 강원도 중심의 환동해권 발전지향으로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는 올림픽 무브먼트의 확산 및 올림픽 유산 창조, 아시아 동계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평창지역 내 『스포츠관광벨트』 조성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동계스포츠 참여 확산 및 동계스포츠 시설 확충, 세계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 확산, 동계스포츠 종목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 도내의 지역발전 촉진과 아시아 동계스포츠산업 발전을 통한 동계스포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모형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 평화적 교류협력 촉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바탕으로 조성되는 인프라와 7년간의 기술진보, 여건변화, 올림픽 개최를 통한 홍보효과가 가능한 신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함으로써 올림픽 개최 이후 지속적인 매출을 창출함으로써 흑자올림픽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3.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지원과 지역발전 과제

#### 가. 기본방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에서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첫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하계와 다른 동계스포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중요하다. 하계올림픽과 달리 눈, 얼음, 추위가 커다란 변수이며, 시설, 장비 등이 하계올림픽보다 다양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만큼 교육훈련 등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온난화 추세와 관련, 경우에 따라서는 제설과 제빙을 위한 효과적 우발사태 대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동계스포츠를 아시아로 확산시키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유·청소년 시장에 동계스포츠를 소개·제공하여 올림픽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위해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평창이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요람으로 변모하면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한다.

둘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가발전과 강원도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계올림픽은 대체로 국민소득이 2만 불 이하인 국가에서, 동계올림픽은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개최해 온 것이 통례인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국가 GDP 2만 불(강원도 GDP 1만 5천 불)에서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는 개최를 전후해서 소득 3만 불 이상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소득 2배, 행복 2배'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현재 강원도의 지역 내총생산(GRDP)은 동남 산업벨트지역의 1/3 수준이고 2018년 추정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의 1/2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격한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 2배 전략'이 불가피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소득 2배, 행복 2배'의 전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 평창올림픽지원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평창올림픽이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부선 축과 호남선 축을 따라 사회간접자본(SOC)이 집중 투자되어 왔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평창-강릉-정선 지역에 대한 철도, 도로, 공항, 항만, 통신 등 기본기반시설에 대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넷째, 동계올림픽 개최 수준에 맞는 세계 수준의 교육, 의료, 위락 등 시설을 갖춘 국제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넘어서는 순환과 재생의 이념 아래 그린 올림픽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강원도와 개최지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 다른 곳과 차별화하면서 동시에 수용태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하여 확실한 이미지와 브랜드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품격 높은 하이터치로 돋보이는 대회운영은 예상 외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 나. 성공적인 동계올림픽개최 지원과 지역발전과제

### 1)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의 조기제정이 필요하다. 동계올림픽 개최는 국가적 사안이면서 동시에 강원도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대회운영과 함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원도지사가 부위원장을 공동으로 맡는 ‘지원위원회’가 그것이다. 또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재정자립도가 낮다. 빈약한 재정을 보완하고 개최 이후 지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절실하기 때문에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올림픽 특구’를 설치하고 특구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의 규정들을 법안에 담았고 위원회, 기획단 등을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그리고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국비지원이 특별법안의 핵심내용으로 담겨져야 한다. 앞으로 신설될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센터에서 분산돼 있는 경기장 접근 도로 확충 등 주요한 것들만 나열해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정 재원 규모만 5조 2,000억 원가량이다. 현재 정부지원 규정대로라면 약 50% 정도를 강원도가 부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별법에 주요 경기시설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을 포함했다.

### 2)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및 육성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은 강원도 천혜의 환경과 스포츠,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특구를 지정,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활발한 투자 경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환

경'을 최우선으로 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다면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올림픽 특구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동계올림픽대회는 기후적 특성상 산악지역 인근 소규모 도시에서 개최, 동계올림픽 도시기반 구축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도시생활에 필요한 자족기능을 유지하여 정주민구를 유입하고 차별화된 시설 도입으로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올림픽특구를 조성한다.

관광객에게 다양한 환경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생활 속에서 일상과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 지역이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주기반을 구축한다. 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도시생활에 필요한 자족기능을 유지하여 정주민구를 유입하고 차별화된 시설 도입으로 새로운 관광·레저·문화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장 생활 서비스·기업이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머무를 만한 강력하고 독창적인 도시 이미지가 필요하다. 스포츠 관련 장비 및 용품제조업체, R&D, 체험·교육 공간, 다목적 활용성을 고려한 계획 및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정주민구를 증가시키고 계절성 문제를 해소한다. 동계올림픽특구는 주변지역의 발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대회 이후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수요를 원활하게 유입하기 위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 3) 문화올림픽 구현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개최지인 평창, 강릉, 정선 및 강원도, 나아가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과 우수성을 담아내는 동시에 올림픽 개최 당대의 문화적 조류와 성취를 담아내는 올림픽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성공적인 문화올림픽 개최를 위한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최지 및 강원도, 그리고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생산, 올림픽 문화행사를 수용하기 위한 문화 인프라의 확충 및 문화행사공간의 정비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올림픽 달성'을 목표로 문화올림픽을 위한 콘텐츠 확보, 매년 해외 거점지역 국가별로 '한국문화

예술 한마당' 개최, 올림픽 참가국 중심의 문화페스티벌 개최, 문화와 연계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동계올림픽 관광객 체험 문화예술 시설 재정비 등의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강원도 및 개최지역은 성공적인 문화올림픽 개최 차원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융합의 고도화, 네트워크 환경의 확산, 새로운 뉴미디어 등장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CT(Culture Technology)기술의 활용이 보편화된 최초의 CT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과 지역문화예술진흥의 국제화, 세계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4) 탄소제로 친환경 올림픽 구현

평창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컴팩트한 경기장 플랜도 마련하였다. 30분 거리에 위치한 두 개의 클러스터에서 모든 올림픽 경기가 열리게 된다. 두 개의 클러스터 중 하나는 백두산맥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알펜시아 클러스터이며, 나머지 하나는 동해를 배경으로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강릉의 코스타 클러스터이다.

평창 2018은 역사상 최초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동계 올림픽(Green dream: O2 plus Winter Games)"이 될 것이다. 탄소 제로 올림픽 플랜에 따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며, 모든 측면에서 친환경 개발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환경부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알파인 스키 활강 경기장의 경우 가리왕산 일대를 제외하고는 국제스키연맹(FIS) 권장 표고(標高)차를 충족시킬 만한 경기장 용지가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 설계를 동시 진행해 건설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 5) 동계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육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개최는 강원도가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관광의 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동계스포츠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와 연계된 산업 기능과 R&D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림픽스포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새로운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지

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레저스포츠용품의 고부가치 레저스포츠장비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옥계지구의 첨단 신소재와 연계하여 기술집약적부가치산업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신동북아시아의 성장에 대비한 스포츠용품산업의 전략기지로 육성하고 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스포츠용품시장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6) 전통산업 관광거점 및 클러스터 조성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지만 후자올림픽을 달성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특산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볼거리, 살거리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이다.

강원도 지역만의 특산물 개발만으로는 양적, 질적 한계가 있으나 전국적 차원의 지자체 입장에서라도 고유의 향토산업이 있지만 국제적 브랜드 제고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업의 영세성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개최장소에 산업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의 지자체, 나아가 환동해지역 향토산업을 집적하여 환동해 향토산업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림픽 시기에는 별도로 준비한 디자인과 품목으로 제공하여 환동해 국가는 자국의 특화산업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외국거점홍보기지로 활용한다.

#### 7) 양양국제공항을 올림픽 공식공항으로 조기 지정

양양국제공항은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항구적인 강원도 발전에 필요한 국가 노드(Node)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제 항공사들의 상업 항로망에 양양공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동계올림픽 공식공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380 이나 B-747 등 초대형 여객기와 화물기가 내릴 수 있는 활주로 증설과 화물터미널, 진입도로 개설 추가가 필요하다.

동계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이 아닌 양양공항을 동계올림픽 공식공항으로의 조기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 시 중단거리 국가에서 올림픽에 참여할 경우 양양공항을 이용하도록 유도·홍보하여 향후 인천공항 포화시대 대비 대체 및 보완역할과 환동해 지역의 중심공항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Hub & Spoke-체계 강화)하여야 한다.

강원 북부선(춘천-양구-인제-속초)과 강원 중부선(원주-횡성-돈내-평창-진부-올림픽특구역-강릉)의 철도역사 주변지역들에 대해 특화된 역세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 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도시경관·디자인 관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가로 시설물 및 창의적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올림픽 개최도시의 표현 및 형상화, 시각적·공간적 도시 이미지 창출 등 올림픽 개최도시의 상징성과 특성을 표현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됨에 따라 향후 경기장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많은 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도시환경의 선진화를 도모한다.

경기장과 주변지역의 사인계획을 포함한 간판의 정비, 올림픽의 상징성을 형상화하기 위한 시설물 조성, 강원도 특성이 반영된 건축물의 정비, 동계스포츠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라인 선상에서의 경관정비 등 신규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마스터플랜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이용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 9) 올림픽시설의 사후 활용계획 수립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가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국가 및 지역의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대형경기장과 편의시설의 건설이 필수적 요건이다. 그러나 경기장의 사후 활용계획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으면 투자된 막대한 재정 예산이 회수되지 못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남게 된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장, 문화, 관광, SOC 등 시설에 대해 효율성 높은 사후활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올림픽 관련 인프라 조성은 계획단계-건설-사후활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적 부담의 최소화, 공익성과 수익성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 10) 도민통합, 선진 도민의식 함양 확산

도민의 실질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도민의 주체적 참여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이 함양되어야 하지만 현재 지역주민들의 조직체계나 세계화 인식수

준으로는 주체적 지역주민 참여로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캠페인 등 휴먼웨어 부분의 확산이 요구된다.

올림픽 개최시, 세계 시민으로서의 글로벌 수준의 정신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올림픽 아카데미’, 그린라이프 마인드 확산, 전통시장 및 중·소상공인 역량강화, 글로벌 강원인 육성 외국어 지원시스템 구축, 초등학교 ‘강원도 및 동계올림픽 알기’ 지역 단위 자원봉사 등의 소프트웨어측면의 시책화가 필요하다.

#### 4. 결론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민들에게 큰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올림픽 개최를 통해 국제적인 지위 향상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유·무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창올림픽 개최를 통해 누리고 얻고자 하는 비전과 그에 부합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올림픽은 행사 자체만으로 흑자 올림픽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평창은 기존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므로 흑자 올림픽의 개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관광과 문화를 고려한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종합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계올림픽 개최는 국가적 사안이면서 동시에 강원도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한국 및 강원도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그냥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대회운영과 함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평창이라는 강원도의 작은 도시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특구의 지정이 필요하다. 강원도의 빈약한 재정을 보완하고 개최 이후 지속발전을 위한 계획이 절실하기 때문에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올림픽 특구’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의 규정 등을 통해 활발한 투자 경로를 확보한다.

셋째,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신설될 경기장, 선수촌,

미디어센터에서 분산돼 있는 경기장 접근 도로 확충 등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정 재원 규모만 5조 2,000억 원가량이다. 현재 정부지원 규정대로라면 약 50% 정도를 강원도가 부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요 경기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경제 올림픽을 위해서 올림픽 개최시설과 사후 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녹색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올림픽을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유의 전통문화를 통한 홍보전략 등 동계올림픽 유산의 확산 및 발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우선 대회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조직위원회·지원위원회 설립 및 지원, 올림픽 특구 지정, 재정지원, 내·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범정부차원의 협력 및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